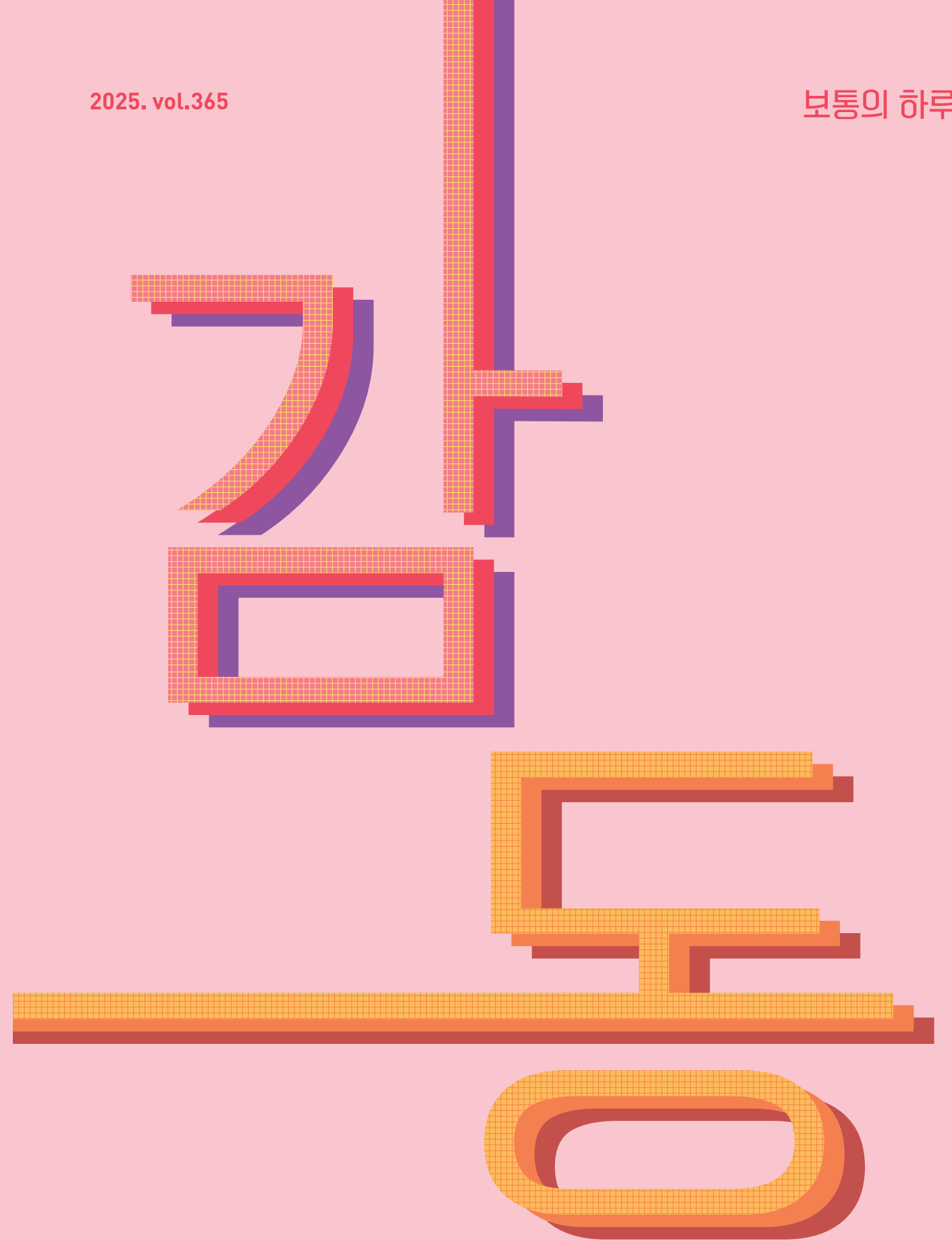




소식지 <보통의 하루>  
독자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www.seoulcbid.or.kr](http://www.seoulcbid.or.kr)  
보통의 삶(Ordinary Life)을 실현하는 복지관

복지관 후원계좌 국민은행 085-01-0185-991 예금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문의 02.440.5715





#감동 #연결



감동은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삶에 다가서며 작은 변화를 만들 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이 곧 감동이 됩니다. 이번 호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어떻게 비추고, 또 감동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나누었는지를 함께 느껴 보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낯선 관계가 서서히 가까워지며, 이야기와 일상을 나누는 자리에 복지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평생교육이라는 매개로 만나는 이웃들, 운동으로 가까워지는 사람들,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어진 베트남 연수단과의 만남까지. 이번 호에는 그렇게 서로가 연결되고, 나누며, 감동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새롭게 취임한 최미영 관장님의 인사말도 이번 호 칼럼으로 실었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고민을 나누며 위안과 회복, 그리고 용기를 드리는 복지관이 되길 바란다는 관장님의 메시지가 곧 우리 복지관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복지관이 여러분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깊은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하루'는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독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큰 울림이 되어 '보통의 하루'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장미희 '보통의 하루' 편집자

- 04 **관장이 되어 바라보는 세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최미영 관장
- 06 **배움으로 여는 관계의 문**  
일상적 권익옹호 사업 '누구나 배움터'
- 10 **수중과 지상을 넘어 '누구나 함께하는 운동'**  
아쿠아 운동&스크린 파크골프
- 12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푸르메학교'

- 14 **스트레스는 낮추고, 업무 활력은 UP!**  
직원 동아리 '활력 UP'
- 16 **디지털 기술과 인지재활의 만남**  
디지털 인지재활 프로그램 '아이어스(EYAS)'
- 18 **일이 있는 하루, 오늘도 출근합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지원 기능강화 사업

- 20 **한국과 베트남, 복지협력의 미래를 그리다**  
베트남 쑹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 '2025년 베트남 실무자 초청연수'
- 24 **장애인과 함께하는 좋은 이웃**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나눔, 사본다마 코리아(주)
- 26 **복지관 뉴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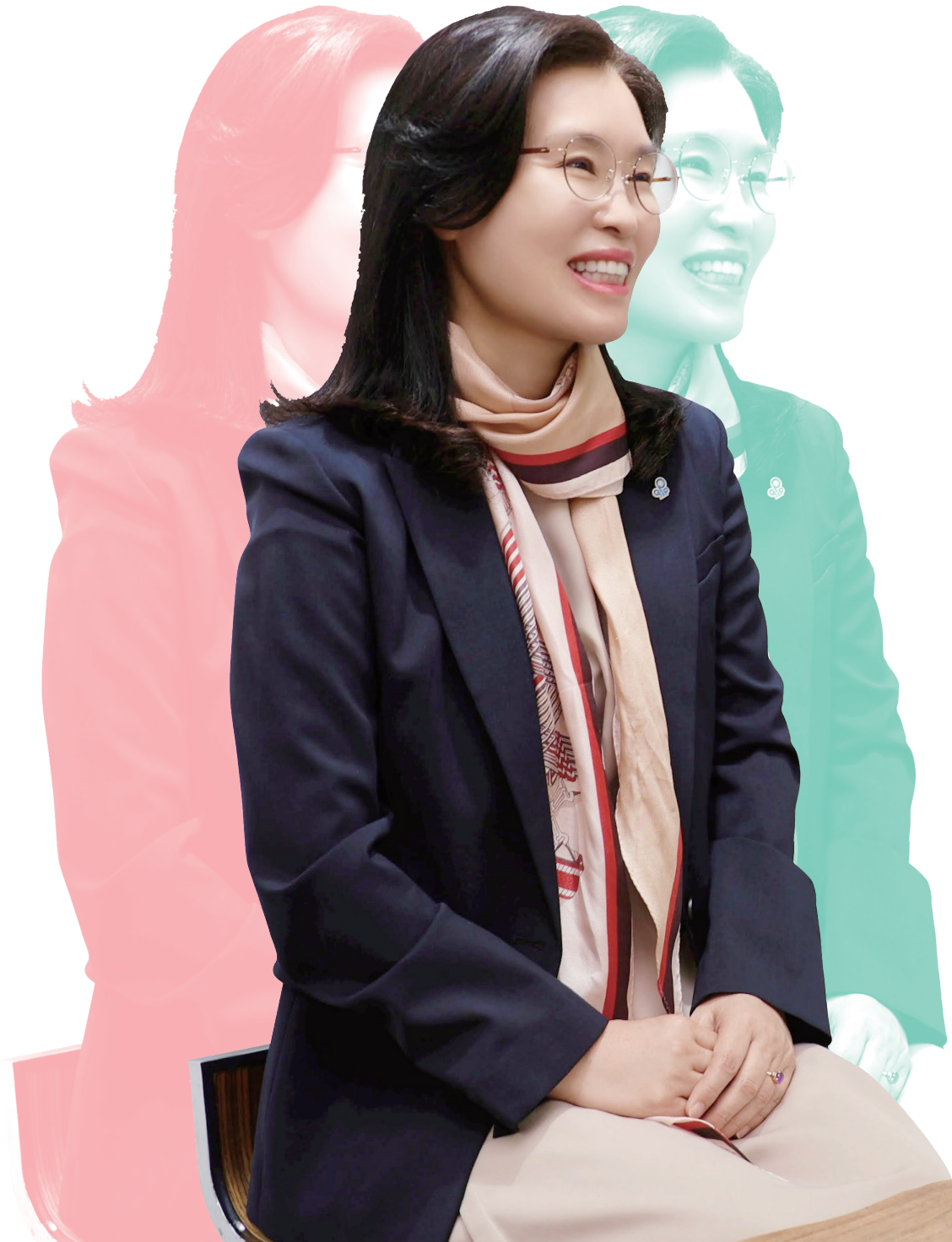


발행일 | 2025년 7월 4일 발행인 | 최미영 발행처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편집부 | 기획협력팀 장미희, 박민선 T. 02-440-5714 제작 | 문화공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700  
 명예편집위원장 | 최미영 편집위원장 | 주민정  
 편집위원 | 장미희 박민선 김경은 김동준 김태라 이윤주 전인곤 하동기  
 정기 구독 신청 | 02-440-5714 웹진 보통의 하루 | haruwebzine.com



# 관장이 되어 바라보는 세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매화 향기는 암향부동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 퍼져나가고, 특히 어둠 속에서 향기가 더욱 짙어진다. 최미영 관장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가진 '최초'라는 사명과 영향력이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푸르메재단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향해 매화의 향기처럼 나아가고자 한다.



기쁘고 감사하다는 기분을 느낄 새도 없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편, 복지관 서비스보다 더 긴 시간 한분 한분의 지역사회 속 삶을 어떻게 지원해 갈지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도 커졌습니다. 수많은 기관 중에 우리 복지관을 신뢰하고 찾아와 주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관장이 되어 바라보니 모든 일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복지관에 있는 동안 좋은 장애인복지를 실천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본보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랜 경험과 고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여러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도와 접근을 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이용자와 관계기관에 선한, 의미 있는 영향력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대되고 설렙니다. 그래서 더 올바르게 실천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용자 분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건 하루하루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복지관의 모든 지원이 이용자 분들에게 매우 즐겁고 감동이 되길 바라며 올해 모토를 '즐거움과 감동'으로 정했습니다.

이용자의 변화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비스에 즐거움과 감동을 더한 우리의 실천이 가닿는 곳이 바로 이용자 분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행복이길 바랍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즐겁고, 감동하며 일하는 것이 더 좋은 실천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은 즐거움과 감동의 요소로 가득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참여와 이웃과 만남의 기회를 더 넓혔고, 사업별로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고 즐기고 체험하는 일들이 긍정적인 삶을 이루어 가는 하나의 일상이 되고, 단순한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복지관은 즐거움과 감동의 요소로 가득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이루어 가는 작은 일상에서 강점을 발견하는 기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점을 발견하는 기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모두를 위한 개선이자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또 다른 강점으로 사회를 위한 기여를 하고,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은 주민의 참여와 기여가 있으며, 서로를 통해 배우고 나누면서 어떤 경계도 없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넘치는 공간으로 우리의 사업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매화나무는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향기는 소리 없이 멀리 퍼집니다. 복지관의 역할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묵묵하게, 널리 영향력 있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도전하고 실천함으로써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기로에 섰을 때, 자주 만나지는 않아도 꼭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런 순간들에 언제든지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머물다 갈 수 있는 사람이자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의 위안과 회복, 그리고 용기 내어 삶의 방향을 찾고, 다시 든든히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푸르메재단의 정신과 함께, 오랜 시간 믿고 맡겨준 서울특별시, 그리고 복지관이 위치한 강동구와 더불어 더 많은 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속 보통의 삶'을 향해 책임감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 배움으로 여는

## 일상적 권익옹호 사업 '누구나 배움터'

글 지역옹호협력팀 안예영 사회복지사  
사진 편집부

# 관계의 문



일상적 권익옹호 사업으로 시작한 '누구나 배움터'는 강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활동입니다. 복지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노래교실과 함께 매달 다양한 평생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은 월 2회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은 원데이클래스 형식으로 매달 다른 주제로 열립니다.

물론, 이러한 운영 방식은 연초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생교육 주제별 관심도 조사를 바탕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노래교실은 이제 지속적인 모임으로 자리 잡았고, 그다음 주목받았던 캘리그래피, 키오스크 활용 교육, 공예 등과 같은 주제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일회성 모임으로 소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누구나 배움터'의 시작

복지관이 지향하는 '누구나 배움터'의 모습은 장애 당사자의 교육적, 문화적 권익옹호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잇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게 열려있는 이 모임에서는 매회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나누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각자가

관심 있는 주제를 매개로 하여 동네 이웃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모임을 진행하는 강사도 외부의 누군가가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 할 수 있게 구성한 것입니다. 모임을 통해 강사 역시 장애 당사자의 관계망 속 한 사람이자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동네인 만큼 강점을 가진 주민도 많고, 그 강점을 이웃과 가까이 나누어 줄 주민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각 주제에 강점과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모임의 참여자로, 그리고 모임의 강사로 만난 지역주민이 '누구나 배움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 '누구나 배움터'는 열린 공간에서

모임을 진행하는 공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나 배움터'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동네의 좋은 공간들을 직접 이용해 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마주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홍보물을 보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복지관이 익숙하고 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모임을 진행한다고 알리자 신청자가 줄었고, 신청하러 왔다가 고민 끝에 발걸음을 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 당사자가 여느 삶처럼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관 밖 다양한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 느슨하지만 계속되는 연결

이처럼 '누구나 배움터'는 계속해서 관계에 중심을 두고 이어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복지관에서 일회성 모임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공방이나 상점에서 꾸준한 모임으로 진행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욱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임의 활력이 더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임이 끝난 뒤 관계가 다시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연결되고, 가까워지고, 느슨해짐을 반복하는 것, 관계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경험과 관계가 하나둘씩 늘어난다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웃이 있어 오늘 하루 살맛 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누구나 배움터'에서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서로가 동네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느슨하지만 지속되는 연결, 이런 관계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 MINI INTERVIEW

“안 해보던 활동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는 만들기 같은 데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걸 다 해보고 싶어서 자주 참여하게 돼요. 장애가 없든,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대화도 나누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 — 넙킨공예 참여자 최미희 씨

“장소가 처음 가보는 곳이라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분이 같이 간다고 하길래 용기를 내서 참여했죠. 막상 가보니 오길 정말 잘했다 싶었어요. 몸이 안 좋아진 뒤로 가위질은 2년 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완성된 작품을 딸에게 보내줬더니 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싶어 너무 감사했어요.”

☞ — 넙킨공예 참여자 이순재 씨

“노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웃음치료까지 함께 해주니까 더 좋았어요. 다 같이 크게 웃으면서 걱정도 날려버리고요. 무엇보다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부르니까 훨씬 더 신나고 재밌었어요.”

☞ — 노래교실 참여자 이영순 씨

# 수중과 지상을 넘어 누구나 함께하는 운동

## 아쿠아 운동&스크린 파크골프



“운동을 하고 싶어도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없어요.”  
 많은 중·고령 및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에 건강증진팀이 응답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도전인 이들을 위해 장애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일상처럼 즐길 수 있는 ‘아쿠아 운동’과 ‘스크린 파크골프’를 시작했다.

글 건강증진팀 정선민 팀장  
 사진 편집부

###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겨요”

아쿠아 운동은 물의 부력과 저항을 활용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지구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물’이라는 환경적 특수성은 지상 운동이 어려운 중·고령 장애인에게 신체적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장애인과 고령자의 참여 부담을 대폭 줄였다. 건강증진팀은 ‘관절에 부담이 없으면서 운동 효과가 높은 수중운동’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장애인을 위한 아쿠아 운동반,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아쿠아 운동반을 신설했다.

음악과 결합한 수중 동작은 반복 운동을 넘어 운동의 즐거움과 지속성을 높여주며, 이용자들은 활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혼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과, 통합 아쿠아 운동반을 통해 상호존중과 교류를 만들어 가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중·고령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체활동이 부족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은 증가하는데 반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증진팀은 아쿠아 운동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장애 유형과 나이를 초월한 통합 운동의 장으로, 그리고 자존감 회복과 삶의 주체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향해 가고자 한다.



### “뇌병변 장애인에게 골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공을 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스크린 파크골프는 ‘운동을 일상처럼 즐기면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올해 새롭게 시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동호회 활동을 접목하여 사회적 연결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관이 지향하는 보통의 삶, 건강한 삶과 딱 맞는 해답이었다.

날씨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스크린에 구현된 파크골프 코스를 따라 기초 동작부터 코스 게임까지, 실제 필드처럼 구성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실외 활동이 어렵거나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령, 중증 장애인에게도 참여의 문턱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씩 꾸준한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자의 장애 특성과 신체 능력에 맞춰 운동 강도와 방식을 조절하고, 게임 형식을 통해 운동의 흥미를 높이고 성취에 따른 자존감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증진팀 스크린 파크골프의 차별화된 점은 참여자 주도의 자율 모임에 있다.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7월부터는 스크린 파크골프 동호회 운영을 시작으로 내부 대회와 지역 교류 대회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커뮤니티로 확대해 가면서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건강증진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건강증진팀은 수중과 지상을 넘어 아쿠아 운동과 스크린 파크골프를 통해 이용자와 함께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갈 계획이다. ‘누구나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실천의 구체적인 모델로서, 운동을 기회 삼아 몸과 마음의 건강, 가족과의 유대, 사회적 관계를 모두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앞으로 이용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한,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다. 🌿

아쿠아운동  
보러가기



# 작지만 분명한

# 변화의 시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푸르메학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푸르메학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낮시간을 따뜻하고, 의미 있게 채워가는 공간이다. 긍정행동지원팀은 푸르메학교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존중받고, 스스로 빛나는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지원한다는 방향성은 그대로, 일대일 맞춤형 지원은 더욱 강화하여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로의 전환을 맞았다.

글 긍정행동지원팀 김진래 팀장  
영상 디지털융합팀

# PRUME

#마트 장바구니 원정기 #작은도전 #푸르메학교



###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세심한 방식의 맞춤형 지원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별 욕구와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그에 따라 우리 복지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에 따라 지원 인력과 공간을 보완하여 지난 10월부터 변화된 서비스 구성과 내용으로 당사자들을 맞이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세심한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일대일 지원이 강화되면서 지원 인력이 보완된 만큼, 기존에 오후 4시까지 진행했던 푸르메학교 프로그램을 오후 5시까지 연장하고, 주 4일 운영에서 주 5일 운영으로 확대했다. 4명의 지원자가 4명의 당사자를 지원하는 구조에서 지원 인력 1명이 더 추가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 지원의 밀도는 더욱 높아졌다. 지원자는 일대일 매칭에 따라 당사자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욕구를 더 깊이 있게 살펴 그들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에 세밀하게 반영하고 있다.

#발렌타인데이 #따뜻한 마음 나누기 #푸르메학교



### 개인별 지원계획, 그리고 일대일 매칭 활동 확대

이전의 푸르메학교도, 변화된 지금의 푸르메학교도 언제나 ‘당사자 중심의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단한 목표나 빠른 변화보다는 당사자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에 귀 기울여, 늦더라도 하나씩 이루어 가는 데 가치를 두는 것이다. 옷 입기나 밥 차리기 같은 소소한 일상부터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스스로 해내는 기쁨을 느끼는 것, 매일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과 더 가깝게 연결되는 것. 이 모든 활동을 한 명 한 명의 속도와 방식에 맞춰 걸어가면서 개인별 지원계획의 바탕을 마련하고, 그것을 다시 일대일 매칭 활동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당사자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시각 자료와 도구, 그리고 환경을 바꿔 가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먼저 해주는 대신 손짓과 그림, 또는 시범을 통해 ‘스스로 해볼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 것. 그렇게 쌓인 작은 성공 경험들이 결국 당사자의 삶에 큰 변화를 이끌 거라는 믿음이 바로 더 강화된 긍정행동지원팀 일대일 지원의 핵심이다.

#웃음을 찾다 #보통의 하루 # 푸르메학교



### 함께 이루어 갈 ‘작지만 분명한 변화’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전국화 계획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물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위한 교육 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행동지원팀은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자 전문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적인 회의와 슈퍼비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컨설팅과 자체 학습 체계를 통한 자료 개발과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해 왔다. 그렇게 비롯된 크고 작은 성과와 실천 사례를 외부에 알리고, 전국의 다른 기관들과 경험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더 나은 지원 환경 안에서 자신만의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길 바라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 갈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응원한다. 🌱

# SCHOOL

# 스트레스는 낮추고, 업무 활력은 UP!

## 직원 동아리 '활력 UP'

복지관은 직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팀워크와 유연한 사고를 통한 직무 몰입을 위해 매년 직원 동아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문화, 여가, 체력 증진 및 친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료애를 키우고, 조직 속 '우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 시간의 목적은 곧 조직 몰입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올해도 총 4개의 직원 동아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 중인 '활력 UP'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인터뷰 운영지원팀 윤성미 영상사('활력 UP' 대표)  
사진 '활력 UP' 제공  
정리 편집부



### '활력 UP'은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가요?

점심시간에 잠깐의 햇살 아래 걷는 산책, 퇴근 후에 따뜻한 국물과 함께 나누는 저녁 한 끼. 누구에게나 하루 속 작은 쉼표가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활력 UP' 동아리는 그런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모임입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직원 15명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만나 웃고, 걷고, 이야기 나누며 활력을 얻고 있어요. 사실 이 동아리는 올해 3년째 꾸준히 운영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운영지원팀 내 직원끼리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던 모임에서 시작했다가, 퇴근 후 기분 좋게 함께 한 소박한 저녁식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여러 직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운영지원팀이 아닌 복지관 직원들의 모임으로 확대됐어요.

활동도 탁구, 산책, 나들이로 조금씩 다양해졌고, 함께 두물머리와 강릉까지도 다녀왔죠. 크게 홍보하지 않아도 '함께 하고 싶다'며 한명 두명 자연스럽게 여기 모이는 건 아마도 아직 우리 안에 살아있는 따뜻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어서일 거예요.

### '활력 UP' 동아리만의 특별한 점을 홍보해 본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무얼 하든 실력도, 체력도 상관없고요. 점심시간에 복지관 근처 아파트 뱃꽃길을 함께 걷거나, 퇴근 후에 가볍게 산책하고 시간이 되는 이틀끼리 한 끼 저녁 식사 나누는 일은 누구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이렇게 시간만 내어 함께 걷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런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문득 내 옆의 동료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부서, 나이, 직급, 각자 맡은 직무도 다 다르지만 서로 더 이해하고 응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직장 안에서의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 앞으로 만들어 갈 연결고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작고 소박한 활동들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동료애도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겠죠. 중요한 건 직원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복지관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업무를 해내기 위해 바쁘겠지만, 이런 직원 동아리로 만나 신뢰와 열린 마음으로 쌓아가는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의 즐거움과 성과를 모두 높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앞으로 '활력UP' 동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

- ✔ 점심시간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 전환하기
- ✔ 퇴근 후 따뜻한 식사로 위로 나누기
- ✔ 주말에는 가끔 외곽 나들이로 추억 만들기
- ✔ 활동도 다양하게! 배드민턴, 탁구, 자전거, 둘레길 걷기까지
- ✔ 이렇게 작은 행복을 함께 쌓아가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디지털 기술과

## 인지재활의 만남

### 디지털 인지재활 프로그램 '아이어스(EYAS)'

글 능력향상촉진부 조일란 부서장, 김보아 작업치료사  
사진 편집부

스마트발달트레이닝 서비스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디딤'과 보행 재활 로봇 서비스를 선보인 가운데, 올해도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 활용의 점진적 추진의 한 걸음으로 디지털 기반 인지재활 시스템 '아이어스(EYAS)'를 도입했다.



#### 디지털 기반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시작

올해 작업치료 환경에 새롭게 도입한 '아이어스(EYAS)'는 인지과학과 뇌과학에 기반한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인지 저하 예방부터 경도인지장애,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을 포괄하는 인지 영역에 특화된 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료와 예방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아이어스는 시선 추적 기술인 '아이링크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청각 연동 자극을 통해 집중력과 인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즉, 아이어스를 활용하여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훈련 과정을 하다 보면 지속해서 누적되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매년 복지관이 실시하는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이용자들의 인지재활치료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바로 이 아이어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지난해 먼저 시작한 디지털 기반 멀티 터치 테이블 '해피테이블'의 경우 여가 중심의 기능성 게임 및 서비스였다면, 아이어스는 그보다 집중적인 훈련이 가능한 재활치료 기기로서 고위험군 이용자들에게 예방적 개입과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능력향상촉진부는 이번 아이어스 도입을 시작으로 이용자의 연령, 흥미, 감각 처리 특성, 집중시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아이어스 도입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작업치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치료교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시범 운영은 개인별 장단기 목표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인지재활 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인 셈이다.

#### 저비용, 고효율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이어스에는 집중력, 기억력, 계산능력, 시지각, 실행능력, 지남력(사람, 장소, 시간 등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등 여섯 가지 영역별 인지 재활 콘텐츠가 있다. 난이도를 조절하여 이용자의 수준에 맞게 쉬운 단계부터 점차 어려운 단계로 진행할 수 있고, 이용자의 인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영역을 선택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특히, 시선 추적에 의한 인지 재활이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의 시각 공간 주의력을 높이고, 단기 기억력 향상과 일상생활 수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많은 반복과 일관성 있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콘텐츠 내용이 꾸러져 있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인지적 도전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에서의 디지털 서비스는 기기 도입에 멈추지 않고, 각 이용자에게 맞는 지원으로 재창조될 것이라는 게 능력향상촉진부의 다짐이자 방향이다. 새로운 기술과 기기는 그 내용과 조작 방식, 매뉴얼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재활치료는 효과가 높지만, 병원이나 시설 기관에서는 고비용으



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복지관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 참여의 문턱을 낮춰 이용자와 가족들에게 더 가깝게, 만족도는 더 높게 서비스를 이루어 갈 계획이다. 🌊

#### MINI INTERVIEW

“서울권역 장애인복지관 중 처음으로 아이어스를 활용한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어스가 아니더라도 미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산화 인지 기기 도입이 점차 확대되겠지요. 중요한 치료적 도구가 되는 이런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인지 기능을 관리하며 스스로 변화를 느낄 것에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로 가족의 부담을 덜고, 예방 중심의 서비스도 가능할 것입니다.”

🗨️ — 김보아 작업치료사

“재활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이용자와 치료사, 가족 등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일에 오히려 기대가 큼니다. 일상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재밌게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것은 분명 이용자가 보통의 삶에 가까워지는 일일 것입니다.”

🗨️ — 조일란 부서장

일이 있는 하루, 오늘도 출근합니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지원 기능강화 사업

글 직업능력향상팀 변주영 훈련지원인  
사진 편집부

job 



Go to work

왼쪽부터 변주영 훈련지원인, 김소연 훈련생

직업지원부는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과 고용, 더 나아가 '보통의 삶'을 함께하기 위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 과정 가운데 한가지 과제로 마주한 것, 바로 중증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취업 후에도 일자리를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증장애인 특성과 속도에 맞춘 직업훈련이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현장의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년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지원 기능강화 사업'을 신청했고, 그동안 직업지원부가 쌓아온 경험과 실천이 밑거름되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 직업지원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지원 기능강화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직업탐색, 직업교육, 직업적 강점 발견, 그리고 맞춤형 취업 연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당사자 삶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5월 당사자 중심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은 지역사회 내 두 곳의 사업체에서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이루어 가고 있다. 주 5일 중 4일은 실제 사업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훈련지원인이 당사자의 특성과 속도에 맞춰 직무 수행을 지원한다. 훈련은 하루 3시간씩 진행되며, 당사자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1일은 복지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해진 훈련 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월 10만 원의 훈련 참여수당도 지급된다.



문준호 훈련생

## 일이 있는 하루, 오늘도 출근합니다.

현재 네 명의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 판촉용 홍보물 포장 사업체와 판매 물품 조립 및 포장 사업체 두 곳에서 시간대를 나누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속도에 맞춰 '해볼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는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일을 배우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직장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일상은 점차 단단해지고 있다. 훈련에 참여한 이후 조금씩 명확한 목표를 갖기 시작했고, '취업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싶어요.',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기 꼭 취업하고 싶어요.'와 같은 구체적인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훈련의 방향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직업지원부가 앞으로 이루어 갈 사업의 모습이기도 하다. 직업지원부는 이 변화가 단지 훈련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욕구와 흥미를 살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잘하며, 더 좋아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직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그리고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통해 더욱 포용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을 발견하길 기대한다. 이 과정이 당사자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취업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 한국과 베트남, 복지협력의 미래를 그린다

베트남 팡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  
'2025년 베트남 실무자 초청연수'

글 편집부  
사진 디지털융합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그리고 국제 보건의료 NGO 메디피스와 협력하여 베트남 중부 팡찌성에 장애인 종합재활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베트남 팡찌성에 세워질 장애인 종합재활센터에서 일하게 될 현지 실무직원 16명과 팡찌성 인민위원회 Le Huu Phuoc(레 후 푸억) 공공행정센터장, 팡찌성 보건국 Nguyen Xuan Dung(우엔 수언 응) 부국장이 참여하는 '2025년 베트남 실무자 초청연수'가 우리 복지관 서비스 현장을 중심으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열렸다.



## 2023년 첫 방문, 이어진 협력의 길

이 사업은 베트남 팡찌성 동하시 지역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모델로 한 장애인 종합재활센터를 건립하는 대규모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국제 보건의료 NGO 메디피스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2023년에는 베트남 팡찌성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 노동보훈사회국, 기획투자국, 건축국 등에 소속된 지방정부 고위관계자 15명이 우리 복지관을 비롯한 5개의 국내 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복지관 모델을 직접 견학하고, 베트남 현지에서의 개관 실무를 돕기 위한 긴밀한 협력의 물꼬를 열었다.

그리고 올해, 그 협력의 길을 이어 베트남 팡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에서 일하게 될 실무자 16명과 한국형 장애인복지관 모델을 베트남 현지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로 '2025년 베트남 실무자 초청연수'를 열게 된 것이다.

베트남 팡찌성에 세워질 이 새로운 센터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과 메디피스는 수개월 전부터 연수 참가자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현지와의 여러 차례 온라인 회의와 조율을 거쳤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관한 A to Z, 현지 개관 준비를 위한 실무자 전문성 및 현장 이해도 향상, 그리고 베트남 맞춤형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계획 수립 능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베트남 실무자들이 각자의 업무와 연계해 배운 내용을 현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단을 맞이했다.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중심의 배움

6월 23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복지관에서의 초청연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최미영 관장과 메디피스 신상문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연수가 각 실무자의 지식과 실천 기술뿐만 아니라 향후 베트남에 세워질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운영의 주체로서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복지관의 각 부서장을 비롯하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원장,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이 참석하여 베트남 실무자들과 인사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다.





모두의 기대, 계속 이어질 양국의 협력

복지관에서의 공동 교육과 심화 교육을 모두 마친 후 이루어진 연수평 가회는 이번 초청연수 기간 중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한 명씩 차례로 각자의 배움과 소감을 이야기하며 베트남에 세워질 새로운 센터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했다. 최미영 관장은 “짧은 연수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연수는 출발선일 뿐이며, 앞으로도 온라인과 현지 방문을 통해 지속해서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겠다”며 앞으로 이어갈 협력을 강조했다. 연수에 함께한 부서장들도 입을 모아 “이번 연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상호 학습과 협력의 장이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베트남 실무자들의 열정과 깊이 있는 질문에서 베트남 장애인복지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메디피스 신상문 총장은 “광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가 베트남뿐 아니라 메콩 지역 장애인복지 모델 확산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초청연수의 끝이 아닌 시작과 비전을 알렸다. 연수단 한 명 한 명이 보여준 열정과 수준 높은 질문 가운데 모두의 성장이 있었던 시간, 한 번 더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의 구심점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영역별로 이어간 맞춤형 실무 교육

특히, 이번 초청연수의 핵심이자 연수단의 열의가 가장 뜨겁게 드러난 부분은 영역별(팀별)로 나뉘어 진행된 심화 교육이었다. 연수단은 운영지원, 전략기획, 직업지원, 지역복지, 가족지원, 의료재활, 보조기기 영역으로 7개 팀을 구성하여 이번 초청연수에 참여했으며, 복지관의 7개 사업 부서와 매칭하여 한배 실무자가 밀접하게 만나고 소통하며 심화 교육을 진행했다. 복지관의 각 사업과 보조작업장, 보조기기센터 사업까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 과정과 실천 기술을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연수단은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과 다양한 의견을 주며 짧은 연수 시간을 깊이 있게 채웠다. 그밖에 복지관과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들을 함께 방문해 한국의 복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한국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모델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광찌성 지역사회에 적합하고, 지역주민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고유의 장애인 종합재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고민과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장애인들이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MINI INTERVIEW



연수 기간 우리 팀을 위해 매우 유용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매우 체계적이고, 장애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가 일할 센터도 복지관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직업지원팀 연수생 Lê Thị Danh Giá

복지관 실무자들이 오랜 현장 경험을 공유해 준 덕분에 광찌성에서 새로운 센터를 운영할 때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운영지원팀 연수생 Đoàn Nhật Huy

수중재활과 음악치료는 베트남에서 매우 생소한 분야였는데, 이곳에서 환하게 웃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행복한 웃음이 베트남 지역사회에도 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의료재활팀 연수생 Hoàng Thị Vân

열정적이고 친절하며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는 복지관 직원들의 모습이 무엇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적용해서 광찌성의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 가족지원팀 연수생 Trần Thị Khánh Ly

초청연수를 준비하며 온라인 회의를 통해 첫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상호 교류로서 얼굴을 마주한 뜻깊은 순간이었다. 이후 첫 번째 연수 프로그램으로 '역량 강화' 영역을 맡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종길 외부 전문가(전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관장)는 '장애인복지의 국제적 흐름과 이해를 주제로 공동 교육을 진행하며 세계적 트렌드 속에서 장애인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그리고 '센터 운영' 영역을 맡아 참여하고 있는 객재복 외부 전문가(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지역사회 중심의 모델'을 주제로 교육을 이어갔다. 마지막은 최미영 관장이 '이용자 맞이부터 사후 관리 시스템까지 복지관 운영의 전 과정을 교육했으며, 이후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모델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 장애인과 함께하는 좋은 이웃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나눔, 샤본다마코리아(주)

글 후원재무팀 김태라 사회복지사

샤본다마코리아(주)는 일본 무침가 비누를 수입·판매하는 기업으로, 2011년부터 복지관의 따뜻한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2007년부터 '사랑나눔회원 제도'라는 자체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복지관에 5천원을 1회 후원하면 구매제품을 15%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대표 상품인 오리지널 비누 세트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출근 여성장애인 가정의 자립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기부금 외에도 정기적인 제품 기부로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함께 걸어온 샤본다마코리아(주)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갈 따뜻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 샤본다마코리아(주) 홈페이지 [www.shabon.co.kr](http://www.shabon.co.kr)

☎ 사랑나눔회원 복지관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101-853678(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복지관 연차보고서 정독(精讀) 이벤트에 남겨주신 복지관을 후원하는 따뜻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소중한 후원금과 후원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전달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과 퀴즈 이벤트를 통해 즐겁게 소통하고자 매년 연차보고서 발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년 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벤트에 남겨주신 '내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후원하는 이유'를 함께 나눠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대표 장애인복지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정 님

“서비스 제공에 선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권경임 님

“다 같이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작게나마 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경현 님

“장애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으로 실천하는 유익한 기관 같아서입니다.”

김정환 님

“복지관은 따뜻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온기를 주는 곳이라서.”

조상현 님

“모두가 장애와 상관없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승희 님

“평범한 사람을 위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복지관의 오랜 봉사 정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대덕복지재단 장소라 님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 후 경제활동을 하면 증액하겠습니다.”

박인수 님

이 외에도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신 많은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04월까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입니다.(가나다순, 가족순) 소중한 마음과 참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개인후원

고옥곤	고주진	곽재복	구동준	권경임	권순남	권승민	권승주	권은경	권현정	권희정	금병란	김경은
김경포	김경현	김계동	김광욱	김교연	김교찬	김귀선	김규경	김규환	김기석	김길호	김도연	김동순
김영일	김명수	김미선	김민우	김민자	김민주	김민지	김상현	김삿별	김선정	김성구	김성수	김성연
김성진	김성진	김성철	김성환	김성훈	김세경	김세훈	김수안	김수연	김신정	김양빈	김양숙	김양신
김영건	김영대	김영순	김원임	김유경	김은숙	김은엽	김은희	김장원	김태식	김정서	김정서	김현후
김정환	김종철	김주영	김준수	김준태	김준홍	김진욱	김창고	김태경	김태곤	김태라	김태훈	김현정
김혜경	김혜윤	김희재	남보람	남상조	노병우	노유정	노은희	문승수	문영배	문희선	민동필	박경희
박길용	박덕배	박동주	박미경	박미자	박상국	박상준	박성만	박성희	박수지	박순자	박순택	박용덕
박우형	박은경	박은령	박인수	박종갑	박종인	박주현	박지연	박지혜	박춘옥	박태우	박해송	박현수
방순옥	방환준	배유진	배희수	백태화	서연정	서주연	선수엽	설성현	손미주	손영희	송방용	송석훈
송연옥	송필준	송호경	신동남	신승림	신윤선	신준국	신희숙	신희순	심규영	심정연	심재명	심희숙
안요한	안희영	양미혜	양윤정	여순자	오경민	오경희	오민경	오복실	오세근	오예진	오자성	오주빈
오진연	오형진	우정환	유병현	유상현	유소미	유연중	유인숙	유창용	유희성	유희용	윤갑수	윤태욱
윤계량	윤나미	윤복숙	윤연비	윤영조	윤용석	윤정원	윤정화	윤종량	윤찬섭	윤치용	윤태욱	
윤형진	윤혜영	이강승	이경란	이경자	이경재	이경호	이관용	이귀옥	이기석	이덕철	이들레	이동근
이박정	이성옥	이세희	이소영	이수섭	이수진	이수형	이숙재	이순자	이효주	이승훈	이애숙	이영미
이영숙	이영주	이옥경	이용진	이용철	이우주	이원표	이은경	이은주	이인옥	이자형	이재신	이정미
이정아	이정준	이정환	이정화	이정희	이종호	이준웅	이지승	이창열	이창우	이하용	이현빈	이형재
이홍식	이희은	임대진	임동진	임성춘	임영석	임용현	임우영	임응훈	임정웅	임현지	임희선	장경식
장남순	장문승	장병학	장수연	장완호	장은석	장한수	장홍석	전 근	전대진	전병호	전상일	전재진
전형권	정동철	정미자	정성욱	정윤규	정은숙	정영수	정재인	정재훈	정정선	정정숙	정정욱	정종훈
정지영	정진민	정표진	정혜순	정혜옥	정혜진	조경훈	조동철	조상현	조성윤	조성진	조성호	조영자

조윤희	조은미	조은영	조은주	조정숙	조종하	조주연	주교은	주현재	주혜리	지은미	차정훈	천강민	최계춘	최광호	최규환	최두호
최미영	최미정	최보성	최보윤	최성자	최영열	최완주	최요원	최윤희	최은희	최은희	최정아	최종훈	최 준	최창혁	하은지	한기영
한성철	한승희	한재범	한종현	함동진	함태화	허중강	현호선	홍기선	홍성권	홍승균	홍승완	홍영숙	홍은진	황병호	황봉석	황서준
황서진	황성미	황순후														

**단체후원** (사)대한석탄협회 | (유)돌코리아(김도형 대표이사) | (주)에이비에스상사(여충기 대표) | (주)유풍(조병우 회장) | (주)코벤(김상준, 임규창 대표) | 강동성심병원 직원기부 | 광운대학교 광운참사랑 | (주)일학(군계일학) 빼빼빵 | 기린약국(염혜진 대표약사) | 하모니치과(김정문 원장) | 동명기술공단 동우회 | 디테일링포럼×주식회사 올클리 | 배재고등학교 | 법무법인 남산(하민호, 양원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지평(양영태, 김지형, 윤성원, 임성택 대표변호사) | 빛소금교회(김낙춘 담임목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샤본다마코리아(주) 사랑나눔회원 | 스마일약국(서종원 대표약사) | 예은산부인과(이경훈 원장) | 장이비인후과(장현주 원장) | 유아안외과(차진우 원장) | 명일전통시장 채일농산물(채중일 사장) | 한국전력 기술(주)

**사업지정후원** (유)돌코리아 아버지 자조모임 가족캠프 외 6개 사업 | 강동성심병원 직원기부\_청소년 학업지원 | 디테일링포럼×주식회사 올클리\_저소득가정 생필품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_디지털마중물 지원사업 |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사업 | 2025 설명절 지원사업 | 재단법인 해피빈\_청소년 학원비 지원

**현물후원** 강동구새마을부녀회\_김장김치(10kg) 10통 | (주)그린웹서비스\_투게더쿠키박스 21개 | 김은영\_성탄과자선물세트 20개 | 비알코리아(주)\_도넛 700개, 머그컵 159개, 약과 150세트, 커피원두(500g) 12봉(3회) | 빼빼렌토\_뽕류 178개(7회) | 서울강동라이온스클럽\_쌀(10kg) 20포 | 예코글로벌(주)\_쌀(10kg) 10포 | 연세심내과\_독감예방백신 및 접종 지원 87명 | (주)금영건설\_쌀(10kg) 20포 | (주)내함물산\_쌀(10kg) 2포 | (주)성현인터내셔널\_쌀(10kg) 20포 | 최태은\_쌀(20kg) 2포 | 푸르메재단\_스탠딩드라이어 3대 | 피자헛암사점\_피자·콜라 40세트(5회)

**숨은천사 외 52명**  
457,800원

지역단체 마일리지(명일점 0011)  
39,780원

희망나눔플랫폼 CHERRY 체리(앱설치)  
260,000원



##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 개최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복지관 곳곳에서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펼쳤다. 행사는 퓨전 국악 공연으로 막을 열었으며, ‘모두 다 꽃이야’를 슬로건으로 내건 일일 공예체험과 포토존이 이용자와 주민들을 환대하며 맞이했다. 시 운세 보기, 술런과 게이트볼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미니 게임 부스도 운영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특식 도시락과 푸드트럭 먹거리 덕분에 야외 잔디밭은 도심 속 화기애애한 피크닉 장소가 되었다. 강당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개별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스마트 치료기기



체험과 치료 영역별 컨설팅도 이루어졌으며, 장애인식개선 영화 <그녀에게> 상영회와 토크콘서트로 장애 감수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주치의 서비스 등록을 안내했으며, 직업훈련생 바리스타들이 직접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며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수중과 지상에서 진행된 건강한마당 프로그램은 참가자들 간의 즐거운 교류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복지관과 이용자,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준비하고 참여함으로써 더욱 뜻깊고,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 제15회 ‘장애이해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 개최



5월 17일, 돌코리아의 후원으로 복지관 잔디밭에서 ‘제15회 장애이해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과 보호자 등 60여 가족,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등 총 200여 명이 함께한 가족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퀴즈 풀이를 넘어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의 장이 되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체험활동, 2부 사전 캠페인, 3부 장애이해퀴즈쇼로 구성되어 참여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퀴즈를 통해 장애 관련 상식뿐 아니라, 편의지원, 권리, 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해 배우며 자연스럽게 다름에 대한 존중과 포용의 태도를 익혔다. 특히 기존 진행방식과는 달리, 라운드를 통과할 때마다 참가자에게 선물이 적립되고, 마지막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함께 가치상’을 수여하여 경쟁이 아닌 참여와 과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변화를 추구했다. 또한 퀴즈쇼 기획부터 장애·비장애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기획단이 참여하여 주요 과정에 직접 함께한 점은 진정성 있는 공감의 메시지를 더했다. 참가 학생들은 “앞으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장애인분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물어보고 돕겠다”며 소감을 전하며, 이번 행사가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의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즐겁고 의미 있는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제1회 세계프랜차이즈의 날, 복지관에 퍼진 따뜻한 온기



6월 11일, 복지관에서는 제1회 세계프랜차이즈의 날을 맞아 뜻깊은 나눔 활동이 펼쳐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현식 회장, 협회 봉사위원회 위원장인 다비치안경체인 김인규 대표이사를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다비치안경 봉사단, 푸르메재단 백경학 대표이사가 함께해 지역사회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은 생필품 키트를 손수 포장해 전달했으며, 다비치안경 봉사단은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시력·청력 검진 및 맞춤형 안경을 지원했다. 더불어 협회와 협회 회원사인 자담치킨의 후원으로 수박과 순살치킨이 특식으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이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복지관이 지원한 최현서 씨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기관 우수사례 ‘대상’ 수상



우리 복지관과 쿠팡(주)이 함께 추진한 ‘장애인 e스포츠 선수 고용 모델’이 202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수행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복지관이 체계적으로 운영한 이 모델은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직무 영역을 개척한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현재 쿠팡 소속 30명의 장애인 e스포츠 선수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활약하고 있다. 고용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발달장애 디자이너 최현서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장애인의 역량에 주목하고 함께 성장하는 고용 모델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역량이 빛날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복한 오늘’ 진행



6월 5일, 지역주민 8명과 사례관리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가족 25명이 함께 경기도 파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지역주민과 장애 당사자가 자연스럽게 어울린 첫 시도였다. 사전모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관심사와 성향에 따라 조를 구성해 나들이를 즐겼다. 짝꿍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간식을 나누며 설렘을 느꼈고, ‘더 헤이 뮤지엄’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며 인생샷도 남겼다. 참가자들은 헤이리 예술마을을 산책하며 가까워졌고, 전시 관람, 식사, 차 마시기 등 평범한 활동을 하며 추억을 쌓았다.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는 조가 생기는 등, 당사자와 주민 간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 물속에서 다시 피어난 몸과 마음의 감각. ‘왓츠(WATSU)의 날’ 개최



5월 10일, 세계수중바디워크협회(WABA)의 ‘세계 왓츠 주간’ 캠페인에 맞춰 복지관에서 ‘왓츠의 날’ 행사가 열렸다. 23명의 참여자는 수중재활운동사와의 1:1 왓츠 체험을 통해 근육 이완과 심리적 안정을 경험했다. ‘왓츠(WATSU)’는 ‘물(Water)’과 ‘지압(Shiatsu)’의 합성어로, 따뜻한 수온과 물의 흐름을 활용해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수중요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실천이자 수중재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은 “물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긍정적 소감을 전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수중재활운동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